

〈송광사 사천왕상의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found in the Chests of Four-Guardian Statues
at the Songgwang-sa, Sooncheon

강 순 애(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序 論 | 와 불공사소장본 권2·6의 비교 |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4.1 주석자 |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2 서지사항 |
| 2. 松廣寺 四天王門 四天王像
의 沿革 | 4.3 교감 및 판각 |
| 3. 四天王像 발굴의 腹藏 典籍 | 5. 結 論 |
| 4.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권1·2 | <참고문헌> |
| | <부록: 그림1-5> |

<초 록>

이 글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단본장소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2의 서지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송광사 사천왕문 사천왕상의 연혁, 사천왕상 발굴의 복장전적, 단본장소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2와 불공사소장본 권2·6의 비교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에 나온 복장은 정장인 대위덕다라니 권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 중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2는 거란장소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자료이다. 같은 책의 권5·6은 1974년 중국 불공사 목탑 석가탑에서 발굴되었다.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권1·2와 권5·6의 주석자 및 서지적인 특징을 비교하였고, 같은 권차 권2를 대상으로 교감 및 판각을 비교하여 이 책은 요본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필사 보각한 것이며 이를 다시 조선조 간경도감에서 번각한 것임을 밝혔다.

이 책은 교장이지만, 거란본을 저본으로 한 연구서로서 국가 보물급으로 지정될만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서지학, 한국학, 불교학 등의 분야에서 거란본을 연구하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요어 :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2

* 아래의 다섯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H00005)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5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found in the chests of four-guardian statutes at the Songgwang-sa, Sooncheon.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in the four aspects such as: 1) the history of four-guardian gates and statutes of the Songgwang-sa ; 2) the physical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riptures ; 3) the comparison of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and the Bulgung-sa Edition vol. 5·6; annotator,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proofing and engraving.

These Buddhist scriptures, except *Taewidok-darani* vol.1 can be called a kyojang. Among these kyojang,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belongs to the Liao Edition which were newly found at the Songgwang-sa, and vol. 5·6 were found at the Bulgung-sa, China. The annotator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se books were studied, the proofing and engraving of Songgwang-sa Edition vol. 2 and the Bulgung-sa Edition vol. 2 were compared. these books were carved at the Kyojangdokam by using the Liao Edition and reprinted in the Kankyongdokam.

It is approved that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are at once the Koryo kyojang and belongs to the Liao Edition and have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as a national tr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for research the kyojang and utilized as important resources in the fields of bibliographical science, Korean studies, and Buddhist sciences, and others.

Keywords : *Pophwakyong-hyunchan-hegotongkum-sincho* vol. 1·2

1. 序 論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시대가 변천되면서 원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어 원자료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용이해졌다. 그러나 불교자료의 경우 복장불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오면서 원자료가 훼손된 부분이 많아 발굴된 후에도 소장자들이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연구자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그 자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성격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조계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21교구 본사이다. 통도사·海印寺와 함께 三寶寺刹의 하나인 僧寶寺刹이며 보조국사 이래로 15국사가 주석했던 선종사찰이다. 사찰의 창건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중창을 거쳐 번성을 구가하였다. 지눌 이후 15명의 국사가 180여 년간 활동한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불사가 이어져 왔다. 삼보사찰로서의 가치는 물론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송광사의 사천왕에서 최근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다. 북방천왕, 서방천왕, 남방천왕, 동방천왕에서 전적이 12종14책, 인본다라니 383점, 후령통 4개, 묵서 1개, 봉함목 4개, 껍쇠 8개, 잔재물이 4종류이다.

이 곳에 발굴된 각 자료들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 자료의 종합적 연구를 위해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송광사 소장불서의 보존에 관한 연구, 「묘법연화경현의」, 「법화문구기」의 각수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의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그 종합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松廣寺 四天王門 四天王像의沿革, 四天王像 발굴의 腹藏 典籍,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와 불궁사소장본 권2·6의 비교를 통해 주석자, 서지사항, 교감 및 판각에 대한 사항을 다루어서 요본 교장과 고려본 교장의 수용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에 제시된 다섯 분야의 영역중에서 사천왕상의 발굴 자료의 특성과 현존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전적은 12종 14책이다. 이들 복장은 정장인 「大威德經陀羅尼」卷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 중 「科註妙法蓮華經」卷7은 고려의 전래본이고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卷5·6과 「成唯識論述記」卷6은 모두 사찰본계통이다. 「金剛鉤顯性錄」卷3·4는 간경도감에서 정서하여 번각한 판이고, 「妙法蓮華經續述」卷5·6, 「成唯識論義燈抄」卷3·4, 「圓覺經人疏釋義抄」卷13, 「妙法蓮華經玄義」卷3·4, 「成唯識論義景鈔」卷12·19는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卷1·2는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筆寫補刻한 것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文句記」卷5·6·7·8은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였지만, 刊經都監에서 번각하고, 뒤에 다시 보각하여 후인한 판이 섞여 있다. 이들 중 전적 12종 14책의 서지적 특징과 성격은 일부 밝혀졌지만,¹⁾ 이들 자료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들 자료는 기존에 국내, 중국 및 일본에서 기존에 발굴된 자료와의 비교 등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자료의 가치를 밝힌다.

이들 자료 중에서 丹本章疏인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1974년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 있는 木塔인 釋迦塔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복장에서 발굴된 47종의 전적중에 들어 있는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2·6을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姜順愛,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第27輯, 27-61.

2. 松廣寺 四天王門 四天王像의 沿革

송광사 사찰의 羽化閣을 지나면 천왕문이 있고 천왕문안에 목조의 사천왕상이 있다. 천왕문은 전면4칸(29척), 측면2칸(21.5척)의 건물이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불법과 가람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봉안하였다. 東方持國天王은 비파를, 南方增長天王은 칼을, 西方廣目天王은 용을 北方多聞天王은 幢(깃발)을 들고 있다.

이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세조조에 처음으로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초창연대는 알 수가 없다. 선조조 정유재란으로 훼손이 되었는데, 광해군 1년(1609)에 智閑을 화주로 하여 대목 學正에 의해 천왕문이 중수되었고,²⁾ 인조 6년(1628) 法欽을 화주로 하여 四天王像이 重造되었다. 이때 동원된 화원은 應圓·高閑·釋湖·法海·戒雄·釋森·懷澗·天翼·離幻·天然·性悅·三忍·信懷·法端이다.³⁾

숙종연간에는 了眼스님을 화주로 하여 44년(1718)에는 천왕문이 重修改彩되었고,⁴⁾ 46년(1720)에는 사천왕상이 중수개채되면서 화원은 一機·幸坦·混平·碩俊·善覺·善日·夏天·得察·斗珍이 동원되었다.⁵⁾ 순조6년(1806)에는 華峰宇成에 의해 사천왕상이 중수개채되었고,⁶⁾ 고종 1년(1864)에 천왕문의 改

2) 松廣寺志, p.25-26.

‘光海君1己酉(1609) 秋冬, 天王門重修, 助役 浮休, 緣化 智閑, 大木 學正, 別座 海天’

3) 四天王與丹靨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 四天王創造及重修記(松廣寺史料 p.63-64);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宣祖6年戊辰(崇禎1, 1628) 四天王塑像重造, 證明 待價熙玉, 持殿 印清, 別座 圓一, 化主 法欽, 書員應圓·高閑·釋湖·法海·戒雄·釋森·懷澗·天翼·離幻·天然·性悅·三忍·信懷·法端, 司果 洪有智·印均, 小兒 李愛生, 供養主 大悟·敬修·懷信·壽命·勝默’

4) 建物部片史雜錄(松廣寺史庫 p.265); 松廣寺誌 p.43

‘肅宗44年戊戌(康熙 57, 1718)春 天王門重修改彩, 化主 了眼, 都監 希梧’

5) 四天王與丹靨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 四天王創造及重修記(松廣寺史料 p.65); 北方持國天王 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肅宗46年庚子(康熙59, 1720)4月 四天王像重修改彩, 證明 以濟, 持殿 致淨, 化主 了眼, 供養主 漢陟·獲軒, 書員 一機·幸坦·混平·碩俊·善覺·善日·夏天·得察·斗珍’

6) 四天王與丹靨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630); 四天王創造及重修記2次(松廣寺史料 p.66-

瓦重修를 龍雲處益이 관장하였다.⁷⁾ 고종 28년(18 91)에는 道淑, 品罕, 其鉉이 사천왕의 중수개채와 천왕문의 개채를 주도하였다.⁸⁾

1925년에는 천왕문의 翻瓦가 있었고,⁹⁾ 이듬해에는 龍巖振秀와 榮雲俊察에 의해 사천왕의 중수개채가 있었다. 이때의 도화사는 경성 開運寺의 普應性一이 맡았다.¹⁰⁾

1940년에는 북방천왕의 項部가 절단되고 頭部가 낙하되어 이듬해인 1941년에 大愚錦秋를 중심으로 사천왕상이 중수개채되었다. 1975년에는 천왕문의 보수, 번와, 단청이 이루어졌고, 1976년에 吳善德華에 의해 사천왕상이 중수개채되었다.¹¹⁾ 2003년에는 남방천왕의 左臂가 절단 낙하되어 천왕문의 사천왕상을 중수하는 중이다.

3. 四天王像 발굴의 腹藏典籍

사천왕상의 복장물은 남방천왕에서는 封緘木 1, 꺾쇠 2, 「成唯識論義燈鈔」卷第12, 印本陀羅尼(朱), 墨書 1매, 喉靈桶, 기타 잔재물이 있었고, 東方天王에서

67); 北方持國 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純祖6年丙寅(嘉慶11, 1806)4월 四天王像重修改彩. 證明 瑞弘, 持殿 良彥, 化主 華峰宇成, 別座 麗 宗, 監 妙察·妙謀’

7) 建物部片史雜錄(松廣寺史庫 p.271); 松廣寺誌 p.44

‘高宗1年甲子(同治3, 1864)天王門改瓦重修. 化主 龍雲處益, 都監 性敏, 瓦監 宜映, 別座 得定’

8) 四天王與卮屨第四重修記(松廣寺史庫, pp.630-633); 四天王創造及重修記3次(松廣寺史料 pp.68-71);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高宗28年辛卯(光緒17, 1891)7월27일. 四天王 重修 改彩·天王門 改彩. 化主 道淑·品罕·其鉉, 都監 性敏·翺洪, 鍾頭 圓敏·正覺 別座 漢昨, 住持 宇正, 維那 裁信’

9) 建物部片史雜錄(松廣寺史庫 p.278); 松廣寺誌 pp.32-33.

‘1925 天王門繡瓦. 董役 海隱, 瓦手 朴致淑, 別座 布凝·雲松·孟洙’

10) 四天王第五重修記(松廣寺史庫, pp.635-638); 四天王創造及重修記4次(松廣寺史料 pp.71-73); 北方持國天王琴板記(寺中記錄에는 東方)

‘1926. 8.17-9.7. 四天王 重修 改彩. 都監 (成) 犀海基賢, 別座 (金) 衛松泰日, 化主 (崔) 龍巖振秀·(金) 榮雲俊察 畫員 都畫士 (金) 普應性一(京城府 東門外 開運寺)’

11) 北方持國天王琴板記.

는 「法華文句記」卷第7·8, 「圓覺經人疏釋義抄」卷第13,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卷第1·2, 「法華文句記」卷5·6, 「妙法蓮華經續述」卷第5·6, 「成唯識論了義燈抄」卷第3·4, 「金剛鐺顯性錄」卷第3·4, 印本陀羅尼(朱) 3종,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卷第5·6, 「成唯識論述記」卷第6 上半·下半, 喉靈桶, 「大威德經陀羅尼」卷第4, 封緘木 1, 꺾쇠 2, 未詳1점, 잔재물이 있었다. 북방천왕에서는 「科註妙法蓮華經」卷第7, 印本陀羅尼(朱), 封緘木 1, 꺾쇠 2, 喉靈桶, 잔재물이 있었고, 西方天王에서는 喉靈桶, 封緘木 1, 꺾쇠 2, 잔재물, 「成唯識論義景鈔」卷第19, 「妙法蓮華經玄義」卷第3·4가 나왔다. 이들 내용을 <표 1>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천왕상의 복장물

천 왕 복 장		북방천왕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계
전적		1종1책	9종 10책	1종1책	2종2책	12종 14책
인본다라니	가형	78	66	99	0	243
	나형	26	96(25)	0	18(18)	140(43)
	계	104	162(25)	99	18(18)	383(43)
후령통		1	1	1	1	4
목서				1		1
봉합목		1	1	1	1	4
꺾쇠		2	2	2	2	8
잔재		1	1	1	1	4

사천왕상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북방다문천왕에서 1종1책, 서방광목천왕에서 2종2책, 남방증장천왕에서 1종1책, 동방지국천왕에서 9종10책으로 도합 12종14책이 발굴되었다. 이들 전적의 서지적인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의 복장전적

天王	書名 및 撰述者	板本	刊行記	備考
北方 (1종1책)	[科註] 妙法蓮華經 卷7/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寺刹本)	충숙왕4 (1317) 刻	발굴조사번호Ⅲ-1
東方 (9종10책)	金剛鐔顯性錄 卷3·4 / 智圓 集(976-1022)	刊經都監板書刻本	刊經都監分司, 世祖7 (1461)	발굴조사번호Ⅱ-7 ※ 교장총록에 없음
	大威德經陀羅尼 卷4 / 闍那崛多 譯	재조대장경의 후쇄 (?)	高麗高宗23-38 (1236-1241)	발굴조사번호Ⅱ-17 再雕大藏經
	妙法蓮華經續述 卷5·6 / 慧淨 述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興王寺 教藏都監, 高麗獻宗元年(1095) 刻;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Ⅱ-5 ※ 卷1·2(寶物第206號): 松廣寺소장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 抄 卷1·2 / 詮明 集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遼本을 저본으로 한 教藏都監本) : 宋本無序 遼本有之 寫而彫出 以補其闕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Ⅱ-3
	法華文句記 卷5·6 / 湛然 述(711-782)	刊經都監翻刻後印 補刻混入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分司, 世祖年間 翻刻, 壬亂以前後印	발굴조사번호Ⅱ-4
	法華文句記 卷7·8 / 湛然 述(711-782)	刊經都監翻刻後印 補刻混入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分司, 世祖年間 翻刻; 壬亂以前後印	발굴조사번호Ⅱ-1
	成唯識論述記 卷6 / 窺基 撰(632-682)	[金山寺廣教院 刻];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寺刹本)	[金堤: 金山寺 廣教院]; 刊經都監分司,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Ⅱ-14
	成唯識論義燈抄 卷3·4 / 惠沼 撰(唐)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Ⅱ-6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興王寺 教藏都監, 宣宗10 (1093) 刻; 刊經都監, 世祖8(1462) 翻刻	발굴조사번호Ⅱ-2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 抄 卷5·6 / 遇榮 集	金山寺廣教院 刻;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寺刹本)	金堤: 金山寺 廣教院, 宣宗9 (1092) 書刻: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Ⅱ-13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南方 (1종1책)	成唯識論義景鈔 卷12 / 潛凝 集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 I-2
西方 (2종2책)	妙法蓮華經玄義 卷3·4 / 智者 說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 IV-5
	成唯識論義景鈔 卷19 / 潛凝 集	刊經都監翻刻本 (底本: 教藏都監本)	刊經都監, 世祖年間 翻刻	발굴조사번호 IV-4

위의 <표 2>의 내용을 분석하면,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에 나온 복장은 정장인 「大威德經陀羅尼」 卷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 중 「科註妙法蓮華經」 卷7은 고려의 전래본이고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과 「成唯識論述記」 卷6은 모두 사찰본계통이다. 「金剛鐺顯性錄」 卷3·4는 간경도감에서 정서하여 번각한 판이고, 「妙法蓮華經續述」 卷5·6,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妙法蓮華經玄義」 卷3·4,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는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는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筆寫 補刻한 것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文句記」 卷5·6·7·8은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였지만, 刊經都監에서 번각하고, 뒤에 다시 보각하여 후인한 판이 섞여 있다.¹²⁾

4. 송광사소장본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와 불공사소장본 권2·6의 비교연구

위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전적은 12종 14책이다. 이들 자료중에서 거란장소의 성격을 밝히는 자료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것이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발굴조사번호Ⅱ-3)이다. 이 자료는 사천왕상 중 동방천왕에서 발굴된 9종 10종의 하나이다. 燕臺 憫忠寺의 沙門 詮明이 鳩摩羅什의 「妙法蓮華經」 7권본에 주석을 붙인 窺基의 「法華經玄

12) 姜順愛,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第27輯, 27-61에 각 전적에 대한 서지적 특징 및 성격은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음.

贊」을 補述한 것이다. 판제는 玄抄(前面 第1·2行, 第4·5字 사이)라고 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9×(19.1+18.9)cm, 無界, 22行22字, 無魚尾, 크기 39.0×24.6cm이다. 이 책은 新抄의 서문을 劉晟이 썼는데, 그 제목의 바로 아래에 宋本無序 遼本有之 寫而彫出 以補其闕이라 되어 있고, 또한 같은 권차의 권2를 중국에서 발굴된 요본과 비교하면, 판식, 행자수,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서문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遼本을 底本으로 하여 敎藏都監에서 筆寫하여 補刻 것임을 알 수 있고, 간경도감에서는 다시 요본을 底本으로 하여 필사보각한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범화경부의 「會古通今抄 十卷 註明 述」에 해당된다. 권1·2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것이고, 권2와 권6은 1974년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 있는 木塔인 釋迦塔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복장에서 발굴된 47종의 전적중에 들어 있다.¹³⁾

이들 두 자료에 대한 주석자, 서지사항, 교감 및 판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거란본과 교장, 간경도감의 판각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4.1 주석자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의 주석자는 燕臺 憫忠寺의 沙門 詮明이다. 전명에 대해서는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에 “續開元釋教錄 三卷詮曉集 舊名詮明”이라 있고, 거란 황제가 명하여 再定한 新經錄의 찬자가 義學沙門 詮曉의 舊名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無礙大師로 일컬어졌으며¹⁴⁾ 거란의 聖宗 統和시기(983- 1011)에 활약한 명승으로 알려지고 있다. 「百法論金臺義府」 15권에 보이는 金臺는 燕京 교외의 지명으로서 詮明이 거란 연경의 승이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다.¹⁵⁾ 또한 그가 머물렀던 憫忠寺는 唐 幽州鎮城의 동남쪽 子城 동

13)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編, 「應縣木塔遼代秘藏」(文物出版社, 1991).

14) 永樂大典 卷465, 天字引 元·統志에는: “大憫忠寺在舊城 有傑閣 奉白衣觀音大像 二石塔對峙于前 按古記考之 唐太宗貞觀十九年(645) 及高宗上元二年(675) 東征還 深憫忠義之士歿于戎事 卜斯地將建寺爲之薦福 …咸雍六年(1070) 表寺額 始可大字 大安七年(1091)重修 增峻其閣一級 釋迦太子之殿 乃無礙太(大)師詮明創始所建 遼聖宗統和八年(990)也”

문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절이며 당의 태종이 고려 원정때 죽은 장사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로써 현재는 法源寺라고 칭한다. 統和年間(983-1011)에 龍龕手鏡의 서문을 쓴 智光이 여기에 거하였고, 太平 2년(송 乾興元年, 1022)에는 송의 眞宗이 죽자 거란의 聖宗이 진종을 위해 資福道場을 설치했다고도 하며, 大安 10년(1084)에는 사문 善製가 찬술한 「燕京人憫忠寺觀音菩薩地宮舍利函記」의 建碑가 있었다. 聖宗이 민충사의 당우내에서 피한 인연으로 開泰年間(1012-1020)에 중수하여 聖恩寺라고도 칭하였다.¹⁶⁾ 전명은 일찌기 요나라의 대장경의 편찬을 맡아서 저술이 풍부하다.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詮明」이 기술한 것으로, 6종 75권의 저술이 있다. “法華經” 아래 ‘會古通今抄 10권, 科 4권, 大科 1권’, “金剛般若經” 아래 ‘宣演科 2권, 宣演會古通今抄 6권’, “彌勒上生經” 아래 ‘科 1권, 大科 1권, 會古通今抄 4권’, “成唯識論” 아래 ‘詳鏡幽微新抄 17권, 應新抄科文 4권, 大科 1권’, “百法論” 아래 ‘金臺義府 15권, 科 2권, 大科 1권’ 등의 주석이 있다.

위의 자료중 현존하는 것은 법화경의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는 10권 중 1권·2권은 송광사에서, 2권·6권은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서 발굴된 것이다(발굴번호 44, 45). 「彌勒上生經會古通今抄」 4권은 전명이 당의 窺基의 「彌勒上生經瑞應疏(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疏 또는 贊)을 해석한 것인데, 山西省 趙城縣의 廣勝寺에서 발굴된 것으로 宋藏遺珍(金版大藏經의 일부를 영인복제한 것) 下集 제2函에 수록되어 있다. 「彌勒上生經科」 1권은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서 발굴되었는데(발굴번호 40), 이는 총 14紙이다. 매紙 행수는 字數가 不定하다. 그동안 일실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새롭게 발굴된 것으로 卷尾題에는 ‘時統和八年(990)歲次庚寅八月癸卯朔十五日戊午故記 燕京仰山寺前楊家印造所有講讚功德廻示法界有情’라는 題記가 있어 990년에 연경 仰山寺에서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 「成唯識論應新抄科文」이 4권중에 3권만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서 발굴되었는데(발굴번호 43) 유식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15) 神尾式春, 「契丹佛教文化史考」(大連: 滿洲文化協會, 1938), 130-131.

16) 神尾式春, 「契丹佛教文化史考」(大連: 滿洲文化協會, 1938), 40-41.

17)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編, 「應縣木塔遼代秘藏」(北京: 文物出版社, 1991), 42-43.

4.2 서지사항

송광사 사천왕의 복장에서 발굴된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는 합본으로된 선장본이다. 이 책의 판제는 玄抄(前面 第1·2行, 第4·5字 사이)라고 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9×(19.1+18.9)cm, 無界, 22行22-23字(권1), 22行21字(권2), 無魚尾, 크기 39.0×24.6cm이다. 卷1은 序(劉晟 撰) 1-2張과 본문 1-71張이며, 권2는 66장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 법화경부의 「會古通今抄 十卷 詮明 述」에 해당된다. 권1·2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것이다.

권1에는 劉晟이 쓴 서문의 제목 바로 아래에 ‘宋本無序 遼本有之 寫而彫出以補其闕’이라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내용에 의거해 송본에는 서문이 없고 요본에 서문이 있어서 요본에 의거해 서문을 필사하고 목판에 새겨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권2의 본문도 내용은 요본을 참조하였지만 그대로 번각하여 새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권차의 권2를 1974년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 있는 木塔인 釋迦塔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복장에서 발굴된 요본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천왕상 복장본의 권2(A본이라 함)는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이며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9×(19.1+18.9)cm, 無界, 22行21字, 無魚尾, 크기 39.0×24.6cm. 이며 판제는 ‘玄抄’이다.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이라 함)는 권축장이고, 결장은 황지이다. 제1는 4행만 남아 있고, 제2지는 殘缺, 제3지는 微殘이 있으며 수보를 거쳐 軸桿은 새로 만들었다. 총47紙, 每紙 32行 18-22字, 四周單邊, 楷書, 未避遼諱, 판제는 ‘法抄’, 經文 중에 朱筆點讀記號가 있다. 특히 권미제에는 “四十七紙 三司左都押衙南肅二十七紙 孫守節等四十七人同雕 伏願上資聖主 下廕四生 聞法衆流 多聰聖惠, 龍花同遇 覺道齊登 法界有情 增益利樂”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종이가 47지가 들었는데 그중 남숙이 27지를 담당하였고, 손수절 등 47인이 함께 판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2>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사천왕상 복장본 권2(A본)와 요본 권2 (B본)의 형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표 3>으로 체계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천왕상 복장본 권2(A본)와 요본 권2(B본)의 형태 비교

비교항목	사천왕상 복장본 권2(A본)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장정	선장본	권축장
광곽 및 크기	四周單邊, 全廓 24.9×(19.1+18.9)cm	四周單邊,
계선 및 행자수	無界, 22行21字	無界, 32行 18·22字
어미	無魚尾	無魚尾
紙數	66지	47지
판제	‘法抄’	‘玄抄’
자체	楷書	楷書
권미제	단어주석	紙數 및 판각자

위의 <표 3>을 보면, 장정은 A본이 선장본인데 비해 B본은 권축장이다. 장정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A본은 원래 권축장의 형식을 선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판식은 광곽의 모양은 같지만 행자수는 A본이 22行21字인데 비해 B본은 32行 18·22字로 행수도 10행의 차이가 나고 자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紙數는 A본이 66지인데 비해 B본이 47지여서 19지의 차이가 나고 있다. 판제는 A본이 ‘法抄’인데 비해 B본은 ‘玄抄’로 서로 다르다. 자체는 같은 해서이지만 요본의 자체가 훨씬 날카롭다. 권미제는 A본에 단어주석이 있는데 비해 B본은 지수 및 판각자가 있다.

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종합하면 사천왕상 복장본(A본)은 서문 뿐만아니라 본문이 전체적으로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敎藏都監에서 筆寫하여 補刻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간경도감에서는 다시 요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 보각한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3 교감 및 판각

사천왕상 복장본 권2(A본)와 요본 권2(B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어떻게 교감을 한 후에 판각을 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紙數는 사천왕상 복장본이 66지인데 비해 요의 불궁사 복장본이 47지여서 19지의 차이가 나고 있다. 사천왕상 복장본 권2(A본)과 요본 권2(B본)의 교감 및 판각을 대조하고 그 내역을 <표 4>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천왕상 복장본 권2(A본)과 요본권2(B본)의 교감 및 판각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1	3지21행4자	未久之問: 問(開의 속자)	3지2행7자	未久之間: 開
2	4지2행8자	不淨汚依: 汙(汚와 동자)	3지5행14자	不淨汚依: 汚
3	4지4행17자	便利涕唾: 痢(설사리)	3지8행2자	便利涕唾: 利(날카로울리)
4	4지5행19자	令弟子執事親覲: 覲(빌근)	3지9행4자	令弟子執事親近: 近 (가까이할 근)
5	4지8행4자	染汙: 汙(汚와 동자)	3지10행12자	染汙: 汚
6	4지10행6자	尙懷猶豫答言: 預	3지13행14자	尙懷猶豫答言: 豫
7	4지13행14자	況汝鈍根: 鈍(鈍과 동자)	3지17행4자	況汝鈍根: 鈍(무덜둔)
8	4지21행4자	陞座: 陞(오를승)	3지24행1자	昇座: 昇(오를승)
9	5지1행15자	脩淨慧者: 脩(닦을수)	3지27행13자	修淨慧者: 修(닦을수)
10	5지8행9자	覲(바랄기)	4지2행15자	冀(바랄기)
11	5지20행8자뒤 1字脫	所計(外): 外(탈락)	4지14행20자	所計外: 外
12	6지6행6자, 8자	世間: 間(사이간)	4지22행 6자, 11자	世間: 間(사이간)
13	6지7행21자 1字 추가	非無慧信(之)體: 之 추가	4지23행18자뒤	非無慧信體
14	7지2행20자1字 추가	過去(之)業: 之추가	5지10행7자뒤	過去業
15	7지10행1자	世間: 間(사이간)	5지17행16자	世間: 間(사이간)
16	7지10행14자1字 추가	出世(間)法: 間 추가	5지18행7자뒤	出世法
17	8지13행2자1字 추가	多(者): 者 추가	6지11행11자뒤	多
18	8지13행18자	般涅槃: 槃	6지12행5자	般涅槃: 盤
19	8지17행16자	不能脩: 脩	6지16행2자	不能備: 備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20	8지17행20,21자 2字추가	(略明)大衆九部: 略明 추가	6지16행5자뒤	大衆九部
21	9지22행14자1字 추가	(阿)羅漢果: 阿 추가	7지11행12자뒤	羅漢果
22	10지2행7자1字 추가	在(於)初禪: 於추가	7지13행1자뒤	在初禪
23	10지9행10자	刊定無耶: 耶	7지20행2자	刊定無邪: 邪
24	11지5행1자1字 추가	有部(之)中: 之 추가	8지5행14자뒤	有部中
25	11지5행11자1字 추가	說諸蘊有(而)從前世: 而 추가	8지6행2자뒤	說諸蘊有從前世
26	11지5행19자1字 추가	(又)云: 又 추가	8지6행9자뒤	云
27	11지6행2자1字 추가	異生(之)位: 之 추가	8지6행12뒤	異生位
28	11지8행1자	無間斷: 間	8지8행11자	無間斷: 間
29	12지8행7자뒤 1字脫	(欲)合: 欲 탈락	8지31행12자	欲合
30	12지8행9자1字 추가	合(習)學者: 習 추가	8지31행13자뒤	合學者
31	14지4행1자1字 추가	大乘(之)教: 之	10지8행18자뒤	大乘教
32	14지5행4,5자2字추가	提婆(菩薩): 菩薩 추가	10지11행3자뒤	提婆
33	14지8행17자	多: 글자의 획이 일부 떨어져 나감	10지14행19자	多
34	14지21행4자	脩	10지27행3자	修
35	15지13행2자	復達義異故: 達	11지9행19자	復得義異故: 得
36	16지1행4자	大衆部藏故: 藏	11지20행9자	大衆部義故: 義
37	16지4행2자	多同化他部義故: 他	11지23행10자	多同化他部義故: 地
38	16지13행5, 9, 11자 3字 추가	其物是假(以)假和合(而) 成(立)故: 以, 而, 立 추가	11지32행17자뒤, 20자뒤, 21자뒤	其物是假假和合成故
39	17지15행7자	世間: 間	12지26행2자	世間: 間
40	17지17행5자	世間: 間	12지28행2자	世間: 間
41	18지22행11자	脩習: 脩	13지24행9자	修習: 修
42	19지19행6자	能令衆生: 令	14지11행7자	能令衆生: 令
43	20지11행8자1字 추가	人(乘)教: 乘 추가	14지25행3자뒤	人教
44	20지15행8자	三乘之性: 之	14지28행19자	三乘定性: 定
45	21지2행20자1字 추가	不定(種)性: 種 추가	15지5행23행뒤	不定性
46	21지3행3자, 4자	小乘(之人): 之人 추가	15지6행3자뒤 2字脫	小乘
47	22지12행13자	涅槃經: 槃	16지6행6자	涅槃經: 盤
48	22지20행4자	涅槃: 槃	16지13행18자	涅槃: 盤
49	22지22행2자, 4자 각1字 추가	四(聖)(也): 聖, 也 추가	16지15행20자뒤, 21자뒤脫	四諦

50	23지10행20자뒤 1字脫	一者約人辯(諦): 諦탈락	16지27행14자	一者約人辯諦
51	23지11행4자뒤 1字脫	二者約法辯(諦): 諦탈락	16지27행20자	二者約法辯諦
52	23지18행7자	有幹性故: 幹	17지3행4자	有體性故: 體
53	25지12행9자	爾雅: 尔	18지10행18자	爾雅: 爾
54	25지12행16자	荷芙蓉: 榮	18지11행6자	荷芙蓉: 榮
55	25지12행16자뒤 주석	荷芙蓉(江東呼爲芙蓉即芙蓉): 江東呼爲芙蓉即芙蓉	18지11행6자뒤 주석	荷芙蓉(別名芙蓉江東呼荷): 別名芙蓉江東呼荷
56	25지13행4자	遐其本密: 遐(멀하)	18지11행16자	遐其本密: 遐(연꽃하)
57	25지13행8자	遐其本密: 密(뻘뻘할밀)	18지11행1자	遐其本密: 密(연근밀)
58	25지13행16자뒤 주석없음	其實蓮	18지12행12자뒤 주석있음	其實蓮(蓮謂房也): 蓮謂房也
59	25지13행19자	其根藕: 藕(짝우)	18지12행17자	其根藕: 藕(연뿌리우)
60	25지14행1자	其中菡: 菡(연밭적)	18지13행2자	其中的: 的(과녁적)
61	25지14행1자뒤 주석	其中菡(蓮內子也): 蓮內子也	18지13행2자뒤 주석	其中的(蓮中子也): 蓮中子也
62	25지14행3자	菡中薏: 薏	18지13행5자	的中薏: 的
63	25지14행5자뒤 주석	菡中薏(心中苦者): 心中苦者	18지13행7자뒤 주석	的中薏(中心苦): 中心苦
64	25지15행13자,14자,15자	華의 주석 呼瓜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18지14행16자뒤 주석	華(呼瓜反): 呼瓜反
65	25지16행9자	脩多羅: 脩	18지15행15자	修多羅: 修
66	25지16행14, 15자	脩妬路: 脩妬	18지15행20자, 18지16행1자	修妬路: 修妬
67	25지22행14자 1字 추가	若(有)別白字者: 有 추가	18지22행3자뒤	若別白字者
68	26지5행18자, 26지6 행1자 각1字 추가	(彼)白蓮花故(故): 彼, 故추가	18지27행7자, 10자뒤	白蓮花
69	26지14행12자, 26지21행4자	脩因: 脩	19지3행16자, 19지10행8자	修因: 修
70	27지1행15자	法花: 花	19지12행18자	法華: 華
71	27지17행4자	脩種智: 脩	19지28행21자	修種智: 修
72	27지18행9자	脩行: 脩	19지30행4자	修行: 修
73	27지12행17자	脩因: 脩	20지14행17자	修因: 修
74	27지18행10자	設以此(之): 之 추가	20지20행10자뒤	設以此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1字추가			
75	28지21행19자	脩行: 脩	20지23행19자	修行: 修
76	29지12행18자1字추가	不能(而): 而 추가	21지4행19자뒤	不能
77	29지13행2,3자2字추가	人(乘之)果: 乘之 추가	21지5행4자뒤	人果
78	29지13행11자1字추가	人乘(之)因: 之 추가	21지5행12자뒤	人乘因
79	30지4행10자	脩道: 脩	21지19행1자	修道: 修
80	30지9행18자	由此准知: 由	21지24행12자	猶此准知: 猶
81	30지14행19자	涅槃: 槃	21지29행16자	涅槃: 盤
82	32지2행6자	脩	22지30행2자	備
83	32지4행10자	涅槃: 槃	22지32행19자	涅槃: 盤
84	32지5행2자	涅槃: 槃	23지1행2자	涅槃: 盤
85	32지7행9,10,11자	蹟의 주석 土草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23지3행10자뒤의 주석	蹟(土草反): 土草反
86	32지8행14자	芙蓉: 榮	23지4행17자	芙蓉: 渠
87	32지9행12자	藹音: 音	23지5행17자	藹者: 者
88	32지9행13, 14, 15자	藹音의 주석 韋毀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23지5행17자의 주석	藹者(韋毀反): 韋毀反
89	32지9행16자	花也榮也: 花	23지6행1자	華也榮也: 華
90	32지9행21자	言花: 花	23지6행6자	言華: 華
91	32지11행8자	蓮花: 花	23지7행16자	蓮華: 華
92	32지12행9자 1字추가	(第)十六: 第 추가	23지8행17자	十六
93	32지12행12자1字추가	(名)妙法蓮花: 名 추가	23지8행19자	妙法蓮華
94	32지12행16자	妙法蓮花: 花	23지9행1자	妙法蓮華: 華
95	34지13행12자	唯偏: 偏	24지23행18자	唯局: 局
96	35지15행3,4자	離合懸隔: 懸隔	25지16행8,9자	離合玄格: 玄格
97	36지20행17,18자	略示纖毫: 纖毫	26지13행2,3자	略示方隅: 方隅
98	36지21행10,11자	離合懸隔: 懸隔	26지 13행2,3자	離合玄格: 玄格
99	37지1행10자	四番: 番	26지15행8자	四翻: 翻
100	37지1행14자	不脩: 脩(備의 속자)	26지16행3자	不備: 備
101	38지11행18자	不之: 之	27지16행18자	不定: 定
102	38지13행18자	上文: 文	27지18행14자	上義: 義
103	38지20행1,2,3자	序音의 주석 序呂反이	27지24행19자뒤	序音(序呂反): 序呂反

		본문으로 되어 있음	의 주석	
104	38지20행17자	東西牆: 牆	27지25행14자	東西牆: 牆(牆)과 동자
105	38지20행18,19자 2자 추가	東西牆(曰序): 曰序 추가	27지25행14자뒤	東西牆
106	38지21행10,11,12자	第音의 주석 特計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27지27행5자뒤 의 주석	第音(特計反): 特計反
107	39지12행1자	府堅: 府	28지6행16자	符堅: 符
108	39지17행16자	符主: 符	28지12행17자	府主: 府
109	39지18행6자1字추가	爲王(也): 也 추가	28지13행6자뒤	爲王
110	40지2행18자	末學無廢: 末	28지20행3자	求學無廢: 求
111	40지4행19자	洒掃: 洒	28지22행5자	灑掃: 灑
112	40지6행20자	令什陞: 陞	28지24행8자	令什昇: 昇
113	40지7행4자 1字추가	說法後(時): 時 추가	28지22행12자뒤	說法後
114	40지7행19자 1字추가	爲(彼)說: 彼 추가	28지25행6자뒤	爲說
115	40지10행1자1字추가	什(公): 公 추가	28지27행9자뒤	什
116	40지11행10자	遂人妓女: 人	28지28행18자	遂命妓女: 命
117	42지15행7,8,9,10자	衆未慍之	30지15행5, 6, 7, 8자	衆未之慍
118	42지17행4자	漆道人: 漆(漆의 同字)	30지17행7자	漆道人: 漆
119	42지18행17자	命安公陞簪: 陞	30지19행1자	命安公昇簪: 昇
120	42지19행12자	侍中培乘: 培(복돋을배)	30지19행19자	侍中陪乘: 陪(쌓아올릴배)
121	43지1행1자뒤 3자탈락	五失(三不易)者: 三不易 3자탈락	30지23행18, 19, 20자	五失(三不易)者
122	43지2행6자뒤 5자추가	言三不易者 5자추가	30지25행3자뒤	言三不易者 없음
123	43지7행15자	同時之髣: 髣(다팔머리모)	30지30행8자	同時之旄: 旄(깃대장식모)
124	43지18행14자	兩番: 番	31지9행20자	兩黻: 黻
125	43지19행12자	二番: 番	31지10행19자	二黻: 黻
126	44지20행15자뒤 1자추가	明(知)囑累品: 知 추가	32지3행4자	明囑累品
127	45지7행17자뒤1자탈락	今詳引事卽錯爲難(卽) 不錯以文殊: 卽 탈락	32지12행19자	今詳引事卽錯爲難卽不 錯以文殊: 卽
128	45지17행21자뒤 1자추가	更有八部(而)歡喜耶: 而 추가	32지24행15자뒤	更有八部歡喜耶
129	46지4행19자뒤1자탈락	今依(此)後解: 此 탈락	33지1행3자	今依此後解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130	46지5행3자뒤2자추가	以妙音(菩薩): 菩薩 추가	33지1행8자뒤	以妙音
131	46지10행7자뒤1자추가	佛(在)於祇桓精舍: 在	33지6행15자뒤	佛於祇桓精舍
132	46지17행19자뒤1자추가	許明佛(之)意: 之 추가	33지15행1자뒤	許明佛意
133	46지19행18자	不喻衆生: 喻	33지17행3자	不捨衆生: 捨
134	47지6행20자뒤1자추가	此(之)偈頌: 之 추가	33지27행7자뒤	此之偈頌
135	47지12행12자	作瓮: 瓮(독옹)	34지1행7자	作甕: 甕(독옹)
136	47지13행5자	彼上泥: 泥(진흙니)	34지2행3자	彼上塗: 塗(진흙니)
137	47지20행15,16,17자	脩行力	34지10행2,3자	修力
138	49지2행9자	涌出: 涌(湧샘솟을용의 본자)	35지5행14자	涌出: 涌
139	49지6행13자	涌出: 涌(湧의 본자)	35지9행21자	踊出: 踊(도약할용)
140	49지9행18,19,20자	殉命持經者の 주석 詞潤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35지13행6자뒤 주석	殉命持經者(詞潤反): 詞潤反
141	49지10행13자	不揀怨親等者: 揀	35지14행1자	不簡怨親等者: 簡
142	49지15행4자뒤1자 탈락	(復)願於此方: 復 탈락	35지18행17자	復願於此方
143	49지19행12-17자	此之初番意也	35지23행5-10자	此初番之意也
144	51지22행19자뒤2행추가	不淨九孔(之中): 之中 추가	37지9행5자뒤	不淨爲九孔
145	54지20행15자	不覺昏然: 昏(어두울혼)	37지30행17자	不覺昏然: 愒(어리석을 혼)
146	54지22행6자뒤1자 추가	皆言賴此(之)樹: 之	37지32행14자뒤	皆言賴此樹
147	55지6행2자	將主佛: 主	38지7행18자	將至佛: 至
148	55지20행18자뒤1자추가	是爲上信: 信	38지22행11자	是爲上
149	55지15행11자뒤1자추가	(其)後得智證: 其	39지32행3자뒤	後得智證
150	57지4행7,8,9	七聖財	41지4행6,7,8자	七勝財
151	57지12행9자뒤1자 추가	諸善功德法故(故): 故	41지13행4자	諸善功德法故
152	57지21행21자	生心所有以變: 以	41지23행12자	生心所有似變: 似
153	58지13행5자뒤1자추가	如餘處說(也): 也	42지5행18자뒤	如餘處說

154	58지20행19자뒤 1자추가	信爲勝手(故): 故	42지14행5자뒤	信爲勝手
155	60지15행15자뒤 1자추가	阿難第六識變(卽): 卽	43지23행19자뒤	阿難第六識變
156	62지12행9자뒤1자추 가	令(彼)讀經: 彼	44지12행1자뒤	令讀經
157	62지22행7자뒤, 10자뒤 각 1자 추가	又有(解)云有(其)梵本:	45지13행20자뒤, 45지14행2자뒤	又有云有梵本
158	63지13행14자	捷稚聲傳迦葉語: 傳	45지27행17자	捷稚聲及迦葉語
159	63지17행16,17자	勤	45지32행4,5자	勤
160	63지18행2자	床: 牀의 俗字	45지32행11자	牀(평상상)
161	63지19행11자	令從戶闌孔: 闌	46지2행2자	令從戶鑰孔: 鑰(자물쇠약)
162	46지5행1자	申手: 申(아홉째 지지신)	46지5행1자	伸手: 伸(펼친)
163	64지3행12자	掛頸: 掛	46지8행6자	卦頸: 卦
164	64지16행4자,7자	亦非碯定若碯定者: 碯(돌소리곡)	46지21행5자, 8자	亦非確定若確定者: 確
165	65지8행10자	反滋過失: 滋	47지4행6자	反資過失: 資

위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천왕상복장본의 권2(이하 A본이라 함)와 요의 불궁사목탑복장본(이하 B본이라 함)을 대교한 결과 전체적인 교감내용을 보면 사천왕상복장본은 불궁사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사천왕상복장본은 불궁사의 저본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글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이체자로 바꾸거나, 저본의 잘못된 단어들을 교감하기도 하였으며, 저본의 내용에 구애되지 않고 의도적인 교감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판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새겼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따라서 교감 및 판각에서 몇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찾아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4.3.1 요본의 글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이체자로 바꾼 경우

요본에서 사용하던 글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이체자로 바꾼 경우를 <표 5>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표 5> 요본의 글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이체자로 바꾼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1	3지21행4자	未久之間: 間(開의 속자)	3지2행7자	未久之間: 開
2	4지2행8자	不淨汙依: 汙(汚와 동자)	3지5행14자	不淨汙依: 汚
5	4지8행4자	染汙: 汙 (汚와 동자)	3지10행12자	染汙: 汚
6	4지10행6자	尙懷猶豫答言: 預	3지13행14자	尙懷猶豫答言: 豫
7	4지13행14자	況汝鈍根: 鈍(鈍과 동자)	3지17행4자	況汝鈍根: 鈍(무덜둔)
8	4지21행4자	陞座: 陞 (오를승)	3지24행1자	昇座: 昇(오를승)
9	5지1행15자	脩淨慧者: 脩(닦을수)	3지27행13자	修淨慧者: 修(닦을수)
10	5지8행9자	翼(바랄기)	4지2행15자	翼(바랄기)
12	6지6행6자, 8자	世間: 間(사이간)	4지22행 6자, 11자	世間: 間(사이간)
18	8지13행18자	般涅槃: 槃	6지12행5자	般涅槃: 盤
19	8지17행16자	不能脩: 脩(備의 속자)	6지16행2자	不能備: 備
28	11지8행1자	無間斷: 間	8지8행11자	無間斷: 間
39	17지15행7자	世間: 間	12지26행2자	世間: 間
41	18지22행11자	脩習: 脩	13지24행9자	修習: 修
47	22지12행13자	涅槃經: 槃	16지6행6자	涅槃經: 盤
48	22지20행4자	涅槃: 槃	16지13행18자	涅槃: 盤
52	23지18행7자	有幹性故: 幹	17지3행4자	有體性故: 體
53	25지12행9자	爾雅: 爾	18지10행18자	爾雅: 爾
69	26지14행12자, 26지21행4자	脩因: 脩	19지3행16자, 19지10행 8자	修因: 修
70	27지1행15자	法花: 花	19지12행18자	法華: 華
71	27지17행4자	脩種智: 脩	19지28행21자	修種智: 修
72	27지18행9자	脩行: 脩	19지30행4자	修行: 修
73	27지12행17자	脩因: 脩	20지14행17자	修因: 修
90	32지9행21자	言花: 花	23지6행6자	言華: 華
91	32지11행8자	蓮花: 花	23지7행16자	蓮華: 華
100	37지1행14자	不脩: 脩(備의 속자)	26지16행3자	不備: 備
101	38지11행18자	不乏: 乏	27지16행18자	不定: 定
104	38지20행17자	東西牆: 牆	27지25행14자	東西牆: 墻(牆)과 동자
111	40지4행19자	洒掃: 洒	28지22행5자	灑掃: 灑
118	42지17행4자	漆道人: 漆(漆의 同字)	30지17행7자	漆道人: 漆
135	47지12행12자	作瓮: 瓮(독옹)	34지1행7자	作甕: 甕(독옹)
136	47지13행5자	彼土泥: 泥(진흙니)	34지2행3자	彼土泥: 渠(진흙니)

앞의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체자¹⁸⁾들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1, no.12, no.28, no.39의 間은 음이 간 또는 한이며, 이체자형으로는 間, 間 등의 글자가 보이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1134-1135), 사천왕복장본에 나타나는 間은 間의 俗字이다.

no.2 와 no.5의 汚는 음이 오 또는 와이며 웅덩이, 낯다, 더럽다, 더럽히다의 뜻이다. 이체자들을 보면 汚, 汚, 汚, 汚, 汚, 汚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503), 사천왕상 복장본에 사용되고 있는 汚는 汚와 同字이다.

no.3의 鈍은 음이 둔이며 노둔하다 무디다의 뜻이다. 이체자형은 鈍, 鈍, 鈍, 鈍 등이 보이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1112), 사천왕상 복장본에 나타나는 鈍은 鈍의 同字이다.<그림 3-1, 3-2>

no.6의 豫와 預는 음이 예이며 미리예의 뜻을 지닐 때 同義異字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豫는 편안할예, 즐길예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미리예의 뜻으로 주로 쓰이는 預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no.8의 昇과 陞은 음이 승이며 오르다, 올리다의 의미이다. 두 글자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 同義異字이다.

no.9, no.41, no.69, no.71-73의 修는 음이 수이며 닦다, 옳게하다, 다스리다의 뜻이며 이의 이체자로는 修, 脩, 修, 脩 등이 있다(고려대장경이체자전 p.25). 사천왕상복장본에서는 脩가 사용되고 있다.

no.10의 冀는 음은 기이며, 뜻은 하고자하다, 바라다이다. 冀는 바랄기의 뜻을 가진 다른 한자로 바꾼 것에 해당한다.

18) 이체자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감과 판각상에서 나타나는 이체자의 경우는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11. 이체자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였다. 그 기준을 보면 1)정자(正字)의 자형과 비교할 때 필획의 가감이 있는 경우, 2)필획의 가감은 없으나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 3)필획의 가감도 없고 구성성분도 같으나 자형 구조상 상하, 좌우, 내외 등의 위치가 다른 경우, 4)획형의 경사도가 다르거나, 두획이 교차 또는 상접하는 경우에 교차획 또는 상접획의 돌출여부가 다른 경우, 5)위의 4가지 기준 중 한가지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인 자형이 정자형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no.18, no.47-48의 槃은 음이 반이며 소반반, 줄길반, 어정거릴반의 뜻이다. 槃은 槃의 이체자로 古字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불교용어에서 涅槃보다는 涅槃을 쓰는 것이 통례이다.

no.19, no.70, no.90-91의 華는 음이 화이며 빛나다, 쪼개다, 꽃피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체자로는 花와 蘂가 쓰이고 있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881), 사천왕상복장본에서는 花가 쓰이고 있다.

no.19, no.100의 備는 음이 비이며 갖추다, 이루다, 방비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체자로는 脩, 侑, 偕, 脩 등의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 31), 사천왕상복장본에서는 備의 속자인 脩가 사용되고 있다.

no.52의 體는 음이 체이며 뜻은 몸, 사지, 모양이다. 이체자로는 倅, 躰, 體가 나타나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1226), 사천왕상복장본에서는 躰가 사용되고 있다.

no.53의 爾는 음이 이이며 너, 그, 오직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체자형은 尔, 尔, 爾 등이 보이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588), 사천왕상복장본에 쓰인 이체자 尔는 爾의 약자이다.

no.101의 定은 음이 정이며 뜻은 정하다, 바르다, 편안하다의 뜻이다. 이체자형은 疋, 疋, 疋가 나타나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209), 사천왕상복장본에 나타나는 글자 疋은 疋의 속자이다.

no.104의 牆은 음이 장이며 담장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체자형은 牆, 牆, 牆, 牆 등의 자형이 있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589-590), 사천왕상복장본에는 牆이 쓰였고, 요본에 쓰인 牆은 牆과 동자이다.

no.111의 灑는 음이 새, 췌, 사이며 물뿌리다, 감짝놀라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사천왕상복장본에 쓰인 灑는 물뿌리다라는 뜻을 가진 同義異字이다.

no.118 漆은 음이 칠이며 물이름, 옷칠하다, 검다의 뜻이다. 사천왕상복장본에 쓰인 漆은 漆의 同字이다.

no.135의 甕은 음이 웅이며 독, 물장군의 뜻이다. 이체자형은 甕, 甕, 甕, 甕 등이 있는데(고려대장경이체자전 p.629-630), 사천왕상복장본에는 이체자중 甕이 쓰였다.

no. 136의 泥는 음이 니이며 흙바르다, 진흙의 뜻이다. 사천왕상복장본에는 쓰인 泥는 진흙, 진창의 뜻을 가진 同義異字이다.

4.3.2 저본의 잘못된 단어들을 교감한 경우

요본에 나타나는 단어들 중 교감을 한 경우를 <표 6>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단어 교감의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54	25지12행16자	荷芙蓉: 渠	18지11행6자	荷芙蓉: 渠
55	25지12행16자뒤 주석	荷芙蓉(江東呼爲芙蓉即芙蓉): 江東呼爲芙蓉即芙蓉	18지11행6자뒤 주석	荷芙蓉(別名芙蓉江東呼荷): 別名芙蓉江東呼荷
60	25지14행1자	其中药: 药(연밭적)	18지13행2자	其中的: 的(과녁적)
61	25지14행1자뒤 주석	其中药(蓮內子也): 蓮內子也	18지13행2자뒤 주석	其中的(蓮中子也): 蓮中子也
62	25지14행3자	药中意: 药	18지13행5자	的中意: 的
63	25지14행5자뒤 주석	药中意(心中苦者): 心中苦者	18지13행7자뒤 주석	的中意(中心苦): 中心苦
66	25지16행14, 15자	脩妬路: 脩妬	18지15행20자, 18 지16행1자	修妬路: 修妬

위의 <표 6>에 나타나는 용례는 연꽃의 별칭인 荷芙蓉을 荷芙蓉로 바로 잡고 그에 대한 주석도 ‘別名芙蓉江東呼荷’를 ‘江東呼爲芙蓉即芙蓉’로 더 분명하게 바로잡고 있다.<그림 4-1, 4-2> 연밭의 뜻을 가진 단어가 요본에 ‘的’으로 된 경우를 ‘药’으로 바로 잡고 있다. ‘脩妬路’를 ‘脩妬路’로 바로잡은 경우는 脩와 脩는 同字이고 妬는 妬로 교감한 사례이다.

4.3.3 저본에 구애되지 않고 의도적인 교감을 시도한 경우

첫째, 문장을 읽어내기 쉽도록 하거나 뜻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어조사를 적

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의 예를 들 수 있다.

<표 7> 어조사 활용의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本 장본 권2(B본)
13	6지7행21자 1字 추가	非無慧信(之)體: 之 추가	4지23행18자뒤	非無慧信體
14	7지2행20자1字 추가	過去(之)業: 之추가	5지10행7자뒤	過去業
22	10지2행7자1字 추가	在(於)初禪: 於추가	7지13행1자뒤	在初禪
24	11지5행1자1字 추가	有部(之)中: 之 추가	8지5행14자뒤	有部中
25	11지5행11자1字 추가	說諸蘊有(而)從前世: 而 추가	8지6행2자뒤	說諸蘊有從前世
26	11지5행19자1字 추가	(又)云: 又 추가	8지6행9자뒤	云
27	11지6행2자1字 추가	異生(之)位: 之 추가	8지6행12뒤	異生位
31	14지4행1자1字 추가	大乘(之)教: 之	10지8행18자뒤	大乘教
38	16지13행5, 9, 11자 3字 추가	其物是假(以)假和合 (而)成(立)故: 以, 而, 立 추가	11 지32행17자 뒤, 20자뒤, 21자 뒤	其物是假假和合成 故
74	27지18행10자 1字추가	設以此(之): 之 추가	20지20행10자뒤	設以此
76	29지12행18자1字추가	不能(而): 而 추가	21지4행19자뒤	不能
78	29지13행11자 1字추가	大乘(之)因: 之 추가	21지5행12자뒤	大乘因
117	42지15행7,8,9,10자	衆末愜之	30지15행5, 6, 7, 8자	衆末之愜
127	45지7행17자뒤1자탈락	今詳引事即錯爲難(即) 不錯以文殊: 即 탈락	32지12행19자	今詳引事即錯爲難 即不錯以文殊: 即
128	45지17행21자뒤 1자추가	更有八部(而)歡喜耶: 而 추가	32 지24행15자 뒤	更有八部歡喜耶
129	46지4행19자뒤1자탈락	今依(此)後解: 此 탈락	33지1행3자	今依此後解
132	46지17행19자뒤1자추가	許明佛(之)意: 之 추가	33지15행1자뒤	許明佛意
134	47지6행20자뒤1자추가	此(之)偈頌: 之 추가	33지27행7자뒤	此之偈頌
143	49지19행12-17자	此之初番意也	35지23행5-10자	此初番之意也
146	54지22행6자뒤1자추가	皆言賴此(之)樹: 之	37지32행14자뒤	皆言賴此樹
149	55지15행11자뒤1자추가	(其)後得智證: 其	39지32행3자뒤	後得智證
151	57지12행9자뒤1자추가	諸善功德法故(故): 故	41지13행4자	諸善功德法故
152	57지21행21자	生心所有以變: 以	41지23행12자	生心所有似變: 似
153	58지13행5자뒤1자추가	如餘處說(也): 也	42지5행18자뒤	如餘處說

154	58지20행19자뒤1자추가	信爲勝手(故): 故	42지14행5자뒤	信爲勝手
155	60지15행15자뒤1자추가	阿難第六識變(卽): 卽	43지23행19자뒤	阿難第六識變
156	62지12행9자뒤1자추가	令(彼)讀經: 彼	44지12행1자뒤	令讀經
157	62지22행7자뒤, 10자뒤 각 1자 추가	又有(解)云有(其)梵本:	45지13행20자뒤, 45지14행2자뒤	又有云有梵本

위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之, 於, 而, 卽, 此, 彼, 故, 其, 以, 也, 又 등을 추가해서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거나 분명히 하고 있다. 사천왕상복장본 16지13행5, 9, 11자는 ‘其物是假(以)假和合(而)成(立)故’와 같이 以, 而, 立 등을 넣어서 문장의 흐름은 부드럽게 하고 뜻은 더 명백하게 하고 있다.<그림 5-1, 5-2> 또한 사천왕상복장본 62지 22행7자, 10자뒤에는 각 1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又有(解)云有(其)梵本’과 같이 실제 단어인 解와 허사 其를 넣어 문장의 전후맥락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둘째, 문장의 내용중에 불교용어를 더 명백하게 바꾸어 놓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불교용어 변경의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21	9지22행14자1字 추가	(阿)羅漢果: 阿 추가	7지11행12자뒤	羅漢果
32	14지5행4,5자2字추가	提婆(菩薩): 菩薩 추가	10지11행3자뒤	提婆
43	20지11행8자1字 추가	人(乘)教: 乘 추가	14지25행3자뒤	人教
45	21지2행20자1字 추가	不定(種)性: 種 추가	15지5행23행뒤	不定性
49	22지22행2자, 4자 각1字 추가	四(聖)(也): 聖, 也 추가	16지15행20자뒤, 21자뒤脫	四諦
130	46지5행3자뒤2자추가	以妙音(菩薩): 菩薩 추가	33지1행8자뒤	以妙音
137	47지20행15,16,17자	脩行力	34지10행2,3자	修力
150	57지4행7,8,9	七聖財	41지4행6,7,8자	七勝財

<표 8>을 보면, 羅漢果(Arhat-phala)는 阿羅漢果의 줄임말이다. 요의 불궁사본에 줄임말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명백한 용어로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提婆를

提婆菩薩로, 人敎를 大乘敎로, 不定性을 不定種性으로, 四諦를 四聖諦로, 妙音を 妙音菩薩¹⁹⁾로, 修力을 脩行力으로, 七勝財를 七聖財²⁰⁾로 바꾸어 놓고 있다.

셋째, 문장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내용의 일부를 加減하거나 단어를 바꾸어 교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문장내용 가감 및 단어교체의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本 장본 권2(B본)
4	4지5행19자	令弟子執事親觀: 觀(별근)	3지9행4자	令弟子執事親近: 近(가까이할 근)
46	21지3행3자, 4자	小乘(之人): 之人 추가	15지6행3자뒤 2 字脫	小乘
50	23지10행20자뒤 1字脫	一者約人辯(諦): 諦탈락	16지27행14자	一者約人辯諦
51	23지11행4자뒤 1字脫	二者約法辯(諦): 諦탈락	16지27행20자	二者約法辯諦
80	30지9행18자	由此准知: 由	21지24행12자	猶此准知: 猶
96	35지15행3,4자	離合懸隔: 懸隔	25지16행8,9자	離合玄格: 玄格
97	36지20행17,18자	略示纖毫: 纖毫	26지13행2,3자	略示方隅: 方隅
98	36지21행10,11자	離合懸隔: 懸隔	26지 13행2,3자	離合玄格: 玄格
99	37지1행10자	四番: 番	26지15행8자	四隸: 隸
110	40지2행18자	未學無廢: 未	28지20행3자	求學無廢: 求
116	40지11행10자	遂入妓女: 入	28지28행18자	遂命妓女: 命
121	43지1행1자뒤 3자탈락	五失(三不易)者: 三不易 3자탈락	30지23행18,19,20 자	五失(三不易)者
122	43지2행6자뒤 5자추가	言三不易者 5자 추가	30지25행3자뒤	言三不易者 없음
126	44지20행15자뒤 1자추가	明(知)囑累品: 知 추가	32지3행4자	明囑累品
131	46지10행7자뒤1자추가	佛(在)於祇桓精舍: 在	33지6행15자뒤	佛於祇桓精舍
133	46지19행18자	不喻衆生: 喻	33지17행3자	不捨衆生: 捨

19) 妙音菩薩은 지난 세상에 10만종의 풍류를 雲雷音王佛에게 공양하고, 동방의 一切淨光莊嚴國에 태어났다. 지혜가 많아서 한량없는 삼매를 얻고 34신을 나타내어 여러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였다. 8만 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사바세계에 와서 영산회상에서 석존에게 공양하고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갔다.

20) 범어 Sapta-dhanāni의 역어로 七聖財, 七德財, 七財로 번역한다. 聖果를 얻기 위한 7종의 法財, 信財, 戒財, 慚財, 愧財, 聞財, 捨財, 慧財이다.

141	49지10행13자	不揀怨親等者: 揀	35지14행1자	不簡怨親等者: 簡
144	51지22행19자뒤 2행추가	不淨九孔(之中): 之中 추가	37지9행5자뒤	不淨爲九孔
148	55지20행18자뒤 1자추가	是爲十信: 信	38지22행11자	是爲十
158	63지13행14자	捷稚聲傳迦葉語: 傳	45지27행17자	捷稚聲及迦葉語
165	65지8행10자	反滋過失: 滋	47지4행6자	反資過失: 資

<표 9>에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사천왕상복장본 4지5행19자는 요본의 親近을 親觀으로 바꾸고 있는데, 觀은 제후가 조정에 나아가 천자를 뵈는다는 뜻이고, 近은 사람을 가까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近을 觀으로 바꾼 것은 제자와 집사들로 하여금 나아가 친히 뵈도록 한다는 뜻으로 가까이한다는 뜻보다는 훨씬 문장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사천왕상복장본 21지3행3자, 4자는 요본에 비해 小乘(之人)의 之人 2자가 추가되어 있다. 이의 전후 문장을 살펴보면 ‘不定種性 小乘之人 令起小乘之行 證小果耶’라 되어 있는데, ‘不定種性²¹⁾은 소승의 사람이 소승의 행을 일으켜서 소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之人의 두자를 추가하여 전후문맥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천왕상복장본 23지10행20자 一者約人辯과 23지11행4자의 二者約法辯다음에 諦를 탈락시키고 있는데, 諦를 탈락시킨 것이 문장의 연결상 훨씬 부드럽다. 사천왕상복장본 30지9행18자의 由此准知는 요본 21지24행12자의 猶此准知를 바꾼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준하여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에 준하여 안다는 것’보다 뜻이 훨씬 명확하다. 사천왕상복장본 35지15행3,4자의 離合懸隔의 懸隔은 25지16행8,9자의 離合玄格의 玄格을 고친 것이다. 懸隔과 玄格은 같이 쓰이기는 하나 離合懸隔은 六離合釋²²⁾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으로 玄格보다 뜻이

21) 不定種性是 성문, 연각, 보살이 3乘 종자를 구비한 것이어서 성문이 될는지, 연각이 될는지, 보살이 될는지 아무데도 결정되지 아니한 기류.

22) 六離合釋은 六合釋을 의미하며 범어의 복합사를 해석하는 여섯가지 방식이다. 1) 依主釋으로 왕의 신을 王臣이라 한 것과 같은 것, 2) 相違釋으로 왕과 신을 왕·신이라 함과 같은 것, 3) 持業釋으로 높은 산을 고산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 4) 帶數釋은 四方, 三界과 같은 것, 5) 有財釋은 長身의人を 장신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것, 6) 隣近釋은 河의 부근을 河畔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

명백하다. 사천왕상복장본 36지20행17,18자의 略示纖毫의 纖毫는 요본 26지13행 2,3자의 略示方隅의 方隅를 고친 것이다. 전후문맥을 보면, ‘此六釋 略示纖毫(方隅) 用濟初學 其於義理 廣如離舍玄格’의 내용으로 纖毫가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는 용어로 方隅보다는 적합한 용어로 여겨진다. 사천왕상복장본 40지2행18자의 未學無廢의 未는 요본 28지20행3자 求學無廢의 求보다 학문을 폐하지 않음이 없다는 이중부정을 사용하여 문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천왕상복장본 40지11행10자의 遂入妓女의 入은 요본 28지28행18자 遂命妓女의 命을 바꾼 것인데, 전후 문맥의 내용을 보면 秦主 姚興이 구마라습을 국사로 모시고 그의 후사를 얻으려고 왕명으로 기생 10인을 들여 처를 삼게 하였으나 구마라습이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이다²³⁾ 이에는 命자보다는 入자가 기녀를 들여서 처를 삼게 하였다는 내용의 전후 문맥상 훨씬 의미가 강하다. 사천왕상복장본 43지1행1자뒤 ‘五失(三不易)者’중의 三不易의 3자를 탈락시켜 43지2행6자뒤에 ‘言三不易者’의 5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 문맥을 보면 五失과 三不易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五失三不易者’를 ‘五失者’²⁴⁾와 ‘言三不易者’²⁵⁾로 분리하여 문장의 맥락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천왕상 복장본은 明囑累品을 明知囑累品으로, 佛於祇桓精舍를 佛在於祇桓精舍로, 不捨衆生을 不喻衆生으로, 不簡怨親等者를 不揀怨親等者로, 不淨爲九孔을 不淨九孔之中으로, 是爲上을 是爲上信으로, 撻稚聲及迦葉語를 撻稚聲傳迦葉語로, 反資過失을 反滋過失로 바꾸어 문장중의 단어의 뜻을 명백히 하기위해 단어를 바꾸거나 첨가하여 문장의 뜻이 무리없이 해석될 수 있도록 교감을 하고 있다.

넷째, 단어의 음을 표시하는 경우 요본에서는 주석으로 처리한 부분을 사천왕상복장본에서는 본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3)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2 40지 10행-14행 “…什公後至秦國 秦主姚興侍以國師之禮 興謂什公大師 聰明之種 永無後代 遂入妓女十人妻之 逼令受之 後不住僧居 別立廡舍 供給之事 倍於常 則什公每登座說法 先說喻云 譬如臭泥出於蓮花 但採其花 勿取臭泥…”.

24) 五失者는 一倒正失 二文質失 三廣略失 四隨情取捨失 五刪前單後失.

25) 言三不易者 時代不同 一不易愚智懸隔 二不易凡聖有殊 三不易言千代之上微言者.

<표 10> 단어음의 주석을 본문으로 처리한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64	25지15행13자, 14자,15자	華의 주석 呼瓜反이 본 문으로 되어 있음	18지14행16자뒤 주석	華(呼瓜反): 呼瓜反
85	32지7행9,10,11자	蹟의 주석 上草反이 본 문으로 되어 있음	23지3행10자뒤 의 주석	蹟(上草反): 上草反
88	32지9행13, 14, 15자	鷲音의 주석 韋毀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23지5행17자의 주석	鷲者(韋毀反): 韋毀反
103	38지20행1,2,3자	序音의 주석 序呂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27지24행19자뒤 의 주석	序音(序呂反): 序呂反
106	38지21행10,11,12자	第音의 주석 特計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27지27행5자뒤 의 주석	第音(特計反): 特計反
140	49지9행18,19,20자	殉命持經者의 주석 詞潤 反이 본문으로 되어 있음	35지13행6자뒤 주석	殉命持經者(詞潤反): 詞潤反

위의 <표 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천왕상복장본에서 단어의 음을 요본처럼 주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본문으로 처리한 경우의 단어는 32지9행11, 12, 13, 14, 15자에 나타나고 있다. 요본의 ‘鷲者(韋毀反)’를 ‘鷲音韋毀反’로 처리하였는데, 鷲者의 者를 音으로 바꾸고 음을 표시하는 주석을 본문으로 처리하고 있다. 글자의 음을 본문으로 처리해도 문장을 읽어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착안하여 의도적으로 교감한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3.4 판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새긴 경우

판각하는 과정 중에 실수로 새긴 경우를 <표 1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 11>에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判定無邪의 邪를 耶로 새긴 것은 문장의 내용상 맞지 않는 글자로 바뀌어 있으므로 판각하는 과정에서 서사, 교열, 각수 등의 실수로 인해 생긴 오각자임을 알 수 있다.²⁶⁾ 나머지도 같은 경우인

26) no.23의 邪(음: 야)는 의문을 표시하는 어기사일 경우는 耶의 본자이며(漢語大字典 6권 p.3758), 耶(음: 사)는 사악하다는 의미에서는 邪의 同字이다(漢語大字典 4권 2784)라고 한 사전적인 정의에 의거하면, 사천왕상복장본에서 耶대신에 耶를 쓴 것은 사악하다는 의미와 뜻을 가진 邪의 동자耶(사)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장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데 化地部가 化他部로, 能令衆生이 能令衆生, 遯其本密이 遯其本密, 其根藕가 其根藕, 伸手が 申手, 亦非確定若確定者가 亦非確定若確定者에 해당한다.

<표 11> 판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새긴 용례

번호	비교항목	사천왕상복장본 권2(A본)	비교항목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B본)
23	10지9행10자	判定無耶: 耶	7지20행2자	判定無邪: 邪
37	16지4행2자	多同化他部義故: 他	11지23행10자	多同化地部義故: 地
42	19지19행6자	能令衆生: 令	14지11행7자	能令衆生: 令
56	25지13행4자	遯其本密: 遯(벌하)	18지11행16자	遯其本密: 遯(연꽃하)
57	25지13행8자	遯其本密: 密(빽빽함발)	18지11행1자	遯其本密: 密(연근밀)
59	25지13행19자	其根藕: 藕(작우)	18지12행17자	其根藕: 藕(연뿌리우)
162	46지5행1자	申手: 申(아홉째 지지신)	46지5행1자	伸手: 伸(펼친)
164	64지16행4자,7자	亦非確定若確定者: 確(돌소리곡)	46지21행5자,8자	亦非確定若確定者: 確

5.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송광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로서 신라승 혜린에 의해 개산되었고,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사를 결성하여 송광사의 중창이 이루어진 이후 오늘날까지 승보사찰로서의 사세가 이어지면서 발전되어 왔다.

2. 천왕문 사천왕상의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선조조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이후 광해군 1년(1609)에 智問을 화주로 하여 대목 學正에 의해 천왕문이 중수되었고, 인조 6년(1628) 法欽을 화주로 하여 四天王像이 重造된 후 여러 차례 重修收彩되었다. 2004년 1월 7일에 사천왕상의 복장물이 개봉된 이후 2차, 3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장물은 인본다라니, 후령통, 묵서, 봉함묵, 꺾쇠, 잔재물 등인데, 이중 전적은 북방다문천왕에서 1종1책, 서방서방광목천왕에서 2종2책, 남방증장천왕에서 1종1책, 동방지국천왕에서 9종10책으로 도합 12

종14이 발굴되었다.

3. 복장은 정장인 「大威德經陀羅尼」 卷4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장이다. 이들 교장 11종 중 「科註妙法蓮華經」 卷7은 고려의 전래본이고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과 「成唯識論述記」 卷6은 모두 사찰본계통이다. 「金剛錫顯性錄」 卷3·4는 간경도감에서 정서하여 번각한 판이고, 「妙法蓮華經續述」 卷5·6,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圓覺經人疏釋義抄」 卷13, 「妙法蓮華經玄義」 卷3·4, 「成唯識論義景鈔」 卷12·19는 교장도감본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는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장도감에서 筆寫 補刻한 것을 번각한 것이며, 法華文句記 卷5·6·7·8은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였지만, 刊經都監에서 번각하고, 뒤에 다시 보각하여 후인한 판이 섞여 있다.

4.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발굴조사번호Ⅱ-3)는 거란장소의 성격을 밝히는 자료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이 자료는 사천왕상중 동방천왕에서 발굴된 9종 10종의 하나이다. 燕臺 憫忠寺의 沙門 詮明이 鳩摩羅什의 「妙法蓮華經」 7권본에 주석을 붙인 窺基의 「法華經玄贊」을 補述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제1범화경부의 「會古通今抄 十卷 詮明 述」에 해당된다. 권1·2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것이고, 권2·6은 1974년 중국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에 있는 木塔인 釋迦塔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복장에서 발굴된 47종의 전적중에 들어 있다.

5.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의 주석자는 燕臺 憫忠寺의 沙門 詮明이다. 그는 義學沙門 詮曉의 舊名으로 인식되고 있고 無礙大師로 일컬어지며 거란의 聖宗 統和시기(983-1011)에 활약한 명승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명은 일찌기 요나라의 대장경의 편찬을 맡아서 저술이 풍부하다.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詮明」의 저술 6종 75권이 들어 있다.

6.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서지사항은 사천왕상 복장본의 권2는 오침안 정법의 선장본이며 판식은 四周單邊, 全廓 24.9×(19.1+18.9)cm, 無界, 22行21字, 無魚尾, 크기 39.0×24.6cm 이며 판심제는 「玄抄」이다. 요의 佛宮寺木塔복장본 권2는 권축장이고, 겉장은 황지이다. 제1지는 4행만 남아 있고, 제2지는 殘缺, 제3

지는 微殘이 있으며 수보를 거쳐 軸桿은 새로 만들었다. 총47紙, 每紙 32行 18-22字, 四周單邊, 楷書, 未避遼諱, 판심제는 ‘法抄’, 經文 중에 朱筆點讀記號가 있다. 특히 권미제에 의하면 종이가 47지가 들었는데 그중 남숙이 27지를 담당하였고, 손수절 등 47인이 함께 판각하였다.

7. 사천왕상복장본의 권2와 요의 불궁사목탑복장본 권2의 교감 및 판각을 통해 총 165항목을 대교한 결과 전체적인 교감 및 판각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천왕상복장본에서는 글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이체자로 바꾸고 있는데, 間→間, 汙→汙, 鈍→鈍, 豫→預, 昇→陞, 修→脩, 冀→覲, 盤→槃, 華→花, 備→脩, 體→軀, 爾→尔, 定→定, 墻→牆, 灑→洒, 漆→漆, 甕→瓮, 泥→泥 등 俗字, 同字, 同義異字, 古字, 略字등의 이체자가 다양하게 쓰였다.

2) 저본의 잘못된 단어들을 교감한 경우가 있는데, 연꽃의 별칭인 荷芙蓉를 荷芙蓉로 바로 잡고 그에 대한 주석도 ‘別名芙蓉江東呼荷’를 ‘江東呼爲芙蓉卽芙蓉’로 더 분명하게 교감하였다. 요본에 ‘的’으로 된 경우는 연밥의 뜻을 가진 ‘的’으로 고쳤다.

3) 저본에 구애되지 않고 의도적인 교감을 시도한 경우는 네가지의 사례가 있다.

첫째, 문장을 읽어나기 쉽도록 하거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之, 於, 而, 卽, 此, 彼, 故, 其, 以, 也, 又 등의 어조사를 추가해서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거나 전후맥락을 분명하게 하였다.

둘째, 문장중에 불교용어를 명백하게 바꾸고 있는데 羅漢果→阿羅漢果, 提婆→提婆菩薩, 人教→大乘教, 不定性→不定種性, 四諦→四聖諦, 妙音→妙音菩薩, 修力→脩行力, 七勝財→七聖財등의 예가 있다.

셋째, 문장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의 일부를 加減하거나 단어를 바꾸어 교감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단어를 바꾸거나 첨가하여 문장의 뜻이 무리없이 해석될 수 있도록 令弟子執事親近을 令弟子執事親觀으로, 小乘을 小乘之人으로, 猶此准知를 由此准知로, 離合玄格을 離合懸隔 등으로 교감하였다. 또한 문장의 연결을 부드럽게하기 위해 一者約人辯과 二者約法辯다음에 諦를

탈락시켰다. 전후 문맥을 명확하게 하고자 ‘五失(三不易)者’ 중의 三不易의 3자를 탈락시키고 뒤에 ‘言三不易者’의 5자를 추가한 경우도 있다.

넷째, 단어의 음을 표시하는 경우 요본에서는 주석으로 처리한 부분을 사천 왕상복장본에서는 본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齠者(韋馱反)’를 ‘齠音韋馱反’로 처리한 것 등 여러 용례가 있다.

4) 판각하는 과정에서 서사, 교열, 각수 등의 실수로 인해 생긴 오각자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判定無邪를 判定無耶로 化地部를 化他部로, 能令衆生을 能令衆生으로, 蕪其本密을 遐其本密로, 其根藕를 其根耦로, 伸手を 虫手로, 亦非確定若確定者를 亦非確定若確定者의 예가 있다.

<참고문헌>

- 姜順愛,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27집(2004) 27-61.
강건기 외, 「송광사」, 서울: 대원사, 1994.
占 鏡, 「송광사천왕문사천왕상」, 순천: 松廣寺聖寶博物館, 2004. 1-21. 미출간본.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大屋德城, 「高麗續藏經造致・新編諸宗教藏總錄」, 京都: 便利堂, 1936.
朴相國, “義天의 敎藏-敎藏總錄의 編纂과 敎藏刊行에 관한 再考察,” 『普照思想』 11집(普照思想研究院, 1998). 77-99.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松廣寺聖寶博物館,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서울: 태학사, 2004.
新文豐編審部, 「新編卍續藏經總目錄」, 臺北: 新文豐出版股份有限公司, 1977.
義 天, 「大覺國師文集」, 麗刻木板本.
義 天, 「新編諸宗教藏總錄」, 活印本影印版(1970).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임석진, 「대승선종조계산송광사지」, 서울: 불일출판사, 1965.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東國文化社, 1964.

韓國學文獻研究所,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篇.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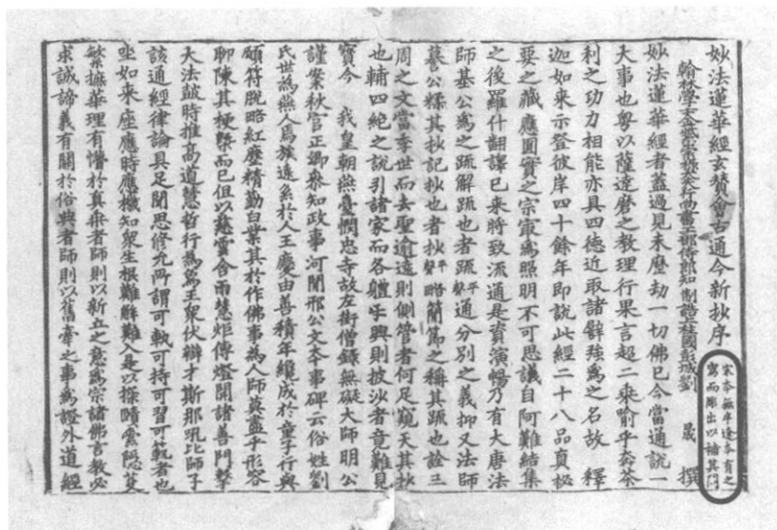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성남: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2000, 279-413.

한국불교연구원, “송광사.” [한국의 사찰] 6, 서울: 일지사, 1984.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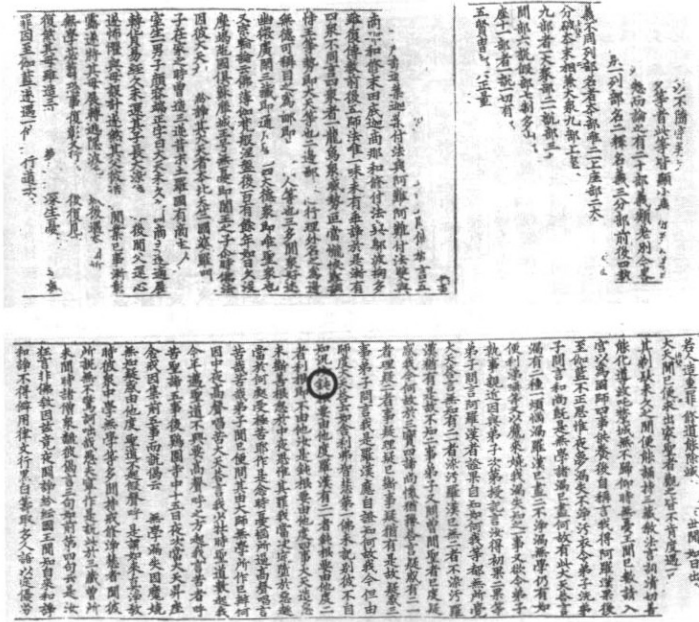
<그림 1> 송광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1 유성서문



<그림 2> 불국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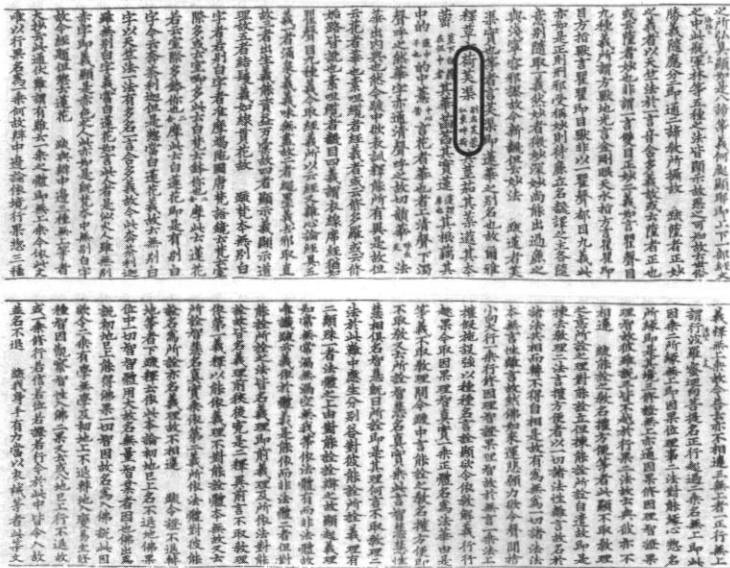
<그림 3-1> 불공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3지17행4자 鈍



<그림 3-2> 송광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4지13행14자 鈍



<그림 4-1> 불공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18지11행6자 뒤



<그림 4-2> 송광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25지12행16자 뒤 주석



<그림 5-1> 불공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11지32행14-22자



<그림 5-2> 송광사발굴본 법화경현찬화고통금신초 권2 16지13행1-12자

